

## 2010년대 여성담론과 그 적들 —‘돌봄’의 횡단과 아줌마 페미니즘을 위하여

정은경\*

1. 들어가며—탈남만화 이후
2. 혐오프레임·정체성 정치·정치적 올바름
3. 일하는 ‘아내’와 일하는 ‘엄마’, 그리고 일하는 ‘딸’
4. ‘돌봄’과 젠더정의
5. 나오며—‘아줌마’ 페미니즘을 위하여

### 국문요약

본고는 90년대 여성문학이 성취한 탈남만화 이후의 여성담론을 살펴보고, 돌봄의 젠더평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2010년대 여성담론은 정체성 정치, 여성 혐오, 정치적 올바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다. 그러나 과잉된 ‘여성성’ 논의와 ‘차이의 정치학’은 젠더불평등의 2차원적 문제 중 인정투쟁에 편중된 것이고, 상대적으로 분배문제를 간과해왔다. 본고는 경제적 불평등과 성별노동에 초점을 맞춰 여성의 일과 가사노동, 돌봄의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의 여성 혐오와 ‘맘충’이라는 비하에는 가정과 ‘엄마’의 영역에 침범한 자본주의적 발상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가사와 돌봄’을 둘러싼 심각한 젠더 부정의에 대해 이의제기하고 있다.

낸시 프레이저는 신자유주의 레짐이 사회복지 투자를 철회하고 여성

---

\*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부교수.

인력을 유급노동화함으로써 심각한 돌봄공백을 가져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낸시 프레이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3가지를 언급한 바 있다.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 동등한 돌봄제공자 모델,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이 그것이다. 이 중 첫 번째는 남성을 보편화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여전히 차이를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사람을 '돌봄'의 주체, 즉 여성으로 상정하는 세 번째 방안을 적극 제시한다.

김혜진의 『딸에 대하여』에서 동성애 커플과 치매노인을 돌보는 여성화자는 낸시 프레이저의 세 번째 대안의 의미심장한 실현일 수 있다. '나와 딸의 동성커플은 '돌봄공동체'로 연대하면서 혈연가족이데올로기와 동성애 혐오를 횡단하고 동시에, 보편적 돌봄 제공자 모델을 체현하고 있다.

2010년대 이후 여성담론은 인정투쟁과 분배투쟁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남성과 화해롭게 공존할 수 있는 페미니즘에 대해 궁구해야 한다. (주제어: 돌봄, 탈남문화, 낸시 프레이저, 조남주, 82년생 김지영, 김혜진, 딸에 대하여, 동성애, 여성혐오)

## 1. 들어가며 - 탈남만 이후

체홉의 <귀여운 여인>에 대한 독해는 논란의 대상이 되곤 했다. 현대 여성 독자들은 사랑 없이는 한 순간도 살 수 없는 주인공 올렌카에 대해 주체성 없는 의존적 여성의 전형으로 비판하곤 하지만, 한편에는 타자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속성을 잘 그려낸 작품이라는 평가도 있어왔다. 네 번이나 읽으면서 감탄했다는 톨스토이의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은 사랑과 모성에 헌신하는 여성을 이상화한, 남성적 독서

의 대표로 볼 수 있다.

90년대 쏟아진 여성 작가의 소설은 페미니즘 측면에서 고무적 현상으로 논의되기도 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체홉의 올렌카들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신경숙은 물론 은희경, 전경린의 작품에서 여전히 ‘사랑’을 갈구하는 여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칠게 말하면, 신경숙의 낭만적 감상성은 말할 것도 없고 은희경의 탈낭만적이며 냉소적인 여성화자들도 그 냉소의 정념만큼이나 ‘진정한 사랑’을 갈구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주며, 집을 나온 전경린의 여성들 또한 ‘제도 밖의 치명적 사랑’에 집착함으로써 여전히 ‘사랑’에서 놓여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여, 90년대 여성 작가의 소설은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여성적 글쓰기’의 어떤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여성적 글쓰기’란 일면적으로, ‘사랑’을 대타자로 설정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운명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근대 소설의 탄생이 로맨스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바이지만(이언와트), 유독 사랑과의 친연성을 드러내는 여성 작가의 작품은 ‘사랑’이 전부일 수밖에 없는 ‘뒤옹박’ 팔자로서의 여성의 운명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나 ‘사랑과 결혼’이 여성의 단 하나의 운명은 아닌 것이다.

90년대 여성소설은 기존의 방식과 다를지라도 ‘남자’ 혹은 ‘사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중요한 의제로 다루었다. 가령 1984년 이상문학상 수상작인 서영은의 〈먼 그대〉는 남성의 폭력과 가부장제에 대해 동일한 폭력적 방식으로 돌려주고, 초월적 주체를 통해 불합리와 모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기이한 ‘순교자’적 여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 대한 문학적 변전으로서, ‘문자’의 마조히즘은 피학적 쾌락의 현현이라기보다는, ‘남자’라는 단 하나의 운명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주인되기’의 비논리적 형상화라고 볼 수 있다. ‘사랑’

이 근본적으로 인정투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텍스트이다.<sup>1)</sup>

90년대 탈남만의 성과를 이어 받은 2000년대 이후 여성 소설에서 낭만적 사랑에 대한 순진한 기대나 이상화가 사라진 것이 사실이다. 정이현의 텍스트는 영리한 여성들이 낭만성을 삭제한 ‘사랑과 ‘성’을 통해 어떻게 분배에서 이득을 볼 것인가를 보여주었다. 정이현의 소설은 은희경의 전략을 이어받아 더 사랑에 냉소적이지만, 남성들과 적대하지 않는다. 정이현의 ‘그녀’들은 철저히 계산하여 ‘남성’에게서 이득을 얻고, 진정성을 버린다.

2000년대 이후 문학담론에서 여성문학, 여성주의 논의는 이전에 비해 현저하게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성적 서사, 탈내향적 화자, 하이브리드 주체의 등장, 미래파 논쟁’과 관련된 탈구조주의 이론의 영향, 정체성 해체<sup>2)</sup>, ‘차이의 정치학’<sup>3)</sup>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논의들이 있어왔다. 그러나 필자는 2000년대 문학이 일면에서는 버지니아 울프적 의미에서 페미니즘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버지니아 울프는 『자기만의 방』에서 진정한 글쓰기는 자신의 성을 의식하지 않는 것, 어떤 적대나 혐오나 대상화를 벗어나서 양성적 글쓰기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

---

1) 서영은의 〈먼 그대〉는 유부남에게 종속된 한 여성이 ‘숭고한 사랑’을 내세워 희생자가 아닌 주체자로서 폭력적 사랑을 승인한다. 이 소설은 역설적이고 기괴한 방식으로 ‘가부장제는 사랑의 반의어’(벨 후스, 최은영, 『당신의 평화』, 『현남 오빠에게』, 다산책방, 2017)를 미학적으로 완성함으로써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적이다. 서영은의 〈먼 그대〉와 달리, 데이트 폭력 등을 다루고 있는 강화길의 『다른 사람』은 이러한 거꾸러진 ‘주체담론’에 저항하여, 데이트 폭력 등의 실태를 비판한 작품이라 할 수 있으나 남성을 타자화(이는 이주노동자, 성소수자의 타자화의 문제적 측면과 유사하다)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적인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타자화는 타자의 무의미, 사망을 선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임지연, 『“여성문학” 트러블』, 『여성문학연구』 26호, 2011, 103-132쪽.

3) 김양선, 『2000년대 한국 여성문학비평의 쟁점과 과제』, 『안과밖』, 2006, 40-61쪽.

했는데, 2000년대 작가들의 탈성화 소설<sup>4)</sup>은 이에 근접해있다. 가령 김애란이나 황정은, 윤이형 같은 여성 작가들은 연애와 결혼서사만을 주제 삼지 않으며, 텍스트의 여성성이 과거에 비해 뚜렷하지도 않고, 대체로 남성들과 더불어 '세계'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물론 이들이 젠더적 관점을 완전히 외면하거나 상실했다는 것은 아니다. 가령 김애란의 어머니와 딸을 이야기하고 있는 <칼자국>이나 돌봄 로봇이 등장하는 윤이형의 <대니>와 같은 작품은 여성적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여성'임이 분명한 작가, 화자의 관심이 이전 90년대만큼 연애와 결혼 서사를 향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의 문제는, 90년대에서 '사랑과 결혼'에 대한 탈낭만과 계몽으로 끝났는가? 여성의 문제를 논의할 때 여성성, 섹슈얼리티에 집중하는 것은 여성 삶의 다양한 방정식을 간과하는 것일 수 있다. 문학의 재점화와 확장을 위해 '문학의 자율성이나 문학성의 재구성'에만 집중하는 것이 문학의 다양한 지평을 상실하는 일이 될 수 있듯, 성차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지나친 궁구는 '여성' 문제가 놓여있는 다양한 함수를 놓친 해법일 수 있다는 것이다.<sup>5)</sup>

버지니아 울프는 『자기만의 방』에서 여성이 글을 쓰려면 '돈과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경제적 독립과 정신적 독립을 상징하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가 빠져있다. 그것은 부유한 엘리트 가문 출신이자 무자녀인 버지니아 울프가 간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가사와 돌

4) 여기서 '탈성화'는 '젠더 트러블'의 성차담론의 실현이 아니라, '여성 작가군'으로 묶을 수 있는 특이성이 사라진 문학지형을 의미한다.

5) 여성성과 성차에 대한 과잉 담론은 일종의 '문학성'에 대한 과잉담론과도 유사하다. 문학이란 무엇인지, 서정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담론이 필요하긴 하지만, 여기에 매몰될 경우,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전하는 그것의 역사성을 간과하고 '타자화'하거나 '물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봄 전담으로부터의 해방.<sup>6)</sup> 이는 분배적 정의(돈), 문화적 인정(방)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다. '아내'와 '엄마'를 단순히 가사, 육아도우미로 대신할 수 없듯 물리적 노동과 종합적 능력, 시간, 애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이 '돌봄'에서의 젠더불평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젠더정의의 실현은 불가능할 것이다.

본고는 '돌봄'의 젠더평등 문제를 낸시 프레이저의 논의와 조남주, 김혜진의 소설을 통해 살펴보고 대안과 비전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 전에 2010년대에 불거진 '여성혐오'의 프레임을 '분배와 인정'의 관점에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 2. 혐오 프레임 · 정체성 정치 · 정치적 올바름

낸시 프레이저<sup>7)</sup>는 젠더 불평등의 문제를 2가적(bivalent 이차원적)으로 파악했다. 하나는 경제적 빈곤(성별 분업을 통한 무임금 노동, 핑크 노동, 저임금 노동 등)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문화적 무시(성적 대상화, 왜소화, 비난 등의 평가절하)이다. 경제적 빈곤은 분배의 차원으로 연결되고, 계급적 억압, 문화적 차원의 '무시'나 '혐오'는 인정의 차원과 연결된다. 낸시 프레이저는 60년대 제2의 페미니즘 물결 이후 페미니즘이 점차 정체성과 재현, 성차의 문제로 이동했으며 이를 통해 사회투쟁을 문화

6) 물론 버지니아 울프는 가상의 여성대학을 상상하면서, 문학사에서의 여성 부재와 남성작가의 여성 왜곡을 비판하고, 그 원인으로 여성의 경제적 빈곤을 들었고, 다시 그 근본적 원인으로 출산과 육아, 가사 노동을 들었다.

7) 미국의 페미니스트 정치철학자이다. 낸시 프레이저는 페미니스트이지만, '여성'으로 분리되고 고립된 지점들—사랑과 성—에 대한 담론에만 집중하지 않는다. 그녀의 페미니즘은, '보편'이라고 주장하는 남성들의 이데올로기들(하버마스, 푸코 등)에 대해 '여성'의 관점으로 개입함으로써 '여성'이 누락된 세계를 재편하고자 한다.

투쟁, 인정투쟁에 종속시켰다고 비판한 바 있다.<sup>8)</sup> 이명호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수잔 구바의 신랄한 비판을 소개한 바 있다.

구바는 페미니즘의 위기를 일종의 비평적 거식증에 비유하면서 자신과 입장이 다른 여성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할 수 없게 만들고 더 억압받는 사회적 위치가 정치적 올바름을 보증해주는 것으로 여기는 이른바 ‘정체성의 정치’(the politics of identity, 여기서 정치적으로 가장 올바르고 진보적인 집단은 다중적 억압이 중첩된 가난한 흑인여성이나 제3세계 하층계급여성 성적 소수자여성이다)와 프랑스 발 이론으로 무장한 탈구조주의를 그 원인으로 든다.<sup>9)</sup>

8) 낸시 프레이저는 ‘재분배에서 인정으로—문화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불행한 결합’이라는 장에서 문화주의와 정체성 정치를 다음과 같이 비판한 바 있다. “전후 여성주의의 첫 번째 국면이 사회주의적 상상력이 ‘젠더를 고려하도록(engender) 만들려고 노력하였다면, 두 번째 국면은 ‘차이를 인정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인정은 세기말의 여성주의자들이 제기하는 요구들에서 최고의 문법이 되었다. (...) 이러한 투쟁들은 종종 정체성 정치의 형식을 취했으며, 평등을 촉진시키기보다는 차이를 수용하는 것을 그 목표로 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문제가 되든 아니면 정치적 대표에서의 젠더불평등이 문제가 되든 간에, 점차로 여성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표현하기 위해 인정의 문법에 호소하였다. 정치경제상의 부정의에 저항할 수 없게 되면서 여성주의자들은 문화적 가치나 신분적 위계질서에 기초한 남성중심주의로부터 기인하는 해악들을 공격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다. 그 결과 여성주의자들의 상상력에서 중요한 전환이 발생했다. (...) 게다가 그것이 이루어진 시기가 최악이었다. 문화적인 인정정치로의 전환이 발생한 것은 바로 신자유주의가 거대한 귀환을 시작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 내내 학계의 여성주의 이론은 전반적으로 ‘차이’에 관한 논쟁에만 전념하였다. ‘본질주의자들’과 ‘반본질주의자들’ 사이의 대립을 지속시키면서 이 논쟁들은 과거의 이론들이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그간 감추어져왔던 배제적 가정들을 폭로하는 데 기여했다.” (낸시 프레이저, 『지구화 시대의 정의』, 김원식 역, 그린비, 2010, 180-182쪽.)

9) 이명호, 『젠더지형의 변화와 페미니즘의 미래—1990년대 미국과 2000년대 한국 페미니즘 담론의 비교연구』, 『여성문학연구』 제26호, 2011, 140쪽.

물론 한국문학에서의 2000년대 페미니즘 담론의 실종을 수잔 구바처럼 문화구성론, 정체성 정치에만 귀속시킬 수 없다. 또한 젠더 평등 실현을 위해 문화적 층위의 담론은 필요하다. 낸시 프레이저의 지적처럼 젠더 불평등이 분배의 불평등, 인정의 불평등 두 측면에 걸쳐 있기 때문에 배타주의나 환원주의로 귀속시키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그 방법으로서 낸시 프레이저는 정치적 차원에서의 ‘위상’ ‘참여 동수’의 평등을 통한 정체성으로부터의 해방, 계급으로부터의 해방을 제안한 바 있다).<sup>10)</sup>

‘분배나 인정이냐로 요약될 수 있는 이 2차원적 문제를 푸는 방식은 쉽지 않다. 낸시 프레이저의 논의대로 경제적 평등이 문화적 인정을 가져다주는 것도 아니고, 인정이 빈곤을 해결해주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하부구조가 상부구조에 우선 한다는 것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가령 동성애자들이 거의 부자라 마치 동성애가 부자임을 입증하는 ‘자연적 성질’처럼 된다면, 동성애 혐오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인정이 기반하고 있는 심리는 단순히 상징계적 차원의 문화적 투쟁의 문제가 아니다. 니체가 죄(Schuld)라는 말의 기원을 부채감에서 찾았듯이, 2000년대 이후 차이의 정치학, 정체성 논의 등의 인정투쟁 중심의 문화주의는 이제 분배투쟁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이미 그 차원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가령 정이현 소설의 성정치경제학은 ‘연애와 결혼’을 ‘인정투쟁’ 차원이 아닌 분배의 문제와 연관시킨 사례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여성혐오와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이다. 혐오 프레임은 타자에 대한 혐오를 통해 자신을 주체화하고<sup>11)</sup>, ‘정체성

10) 낸시 프레이저, 『인정의 시대 페미니즘 정치-젠더정의에 관한 이차원적 접근』, 『진진하는 페미니즘』, 임옥희 역, 돌베개, 2017.

11) 임옥희는 “혐오 발언 안에는 주목을 통해 자신이 행위 주체임을 인정받으려는 ‘주체화의 열정’이 들어있다”고 지적한다. 임옥희, 『주체화, 호러, 재마법화』, 『여성 혐



을 확립하는 것<sup>12)</sup>이다. 혐오는 단순히 여성혐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베’가 지목하는 ‘호남, 중북, 좌파,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노동자’라는 약자를 향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성별 대립이 아니다. 강자의 정체성을 동일화하고 타자, 약자를 밀어내는 배제 전략이다.<sup>13)</sup> ‘정체성’을 기반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혐오 프레임은 정체성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되고 ‘정치적 올바름’의 요구로 이어진다. 2010년대 이후 확산된 정치적 올바름이나 젠더, 퀴어 논의는 매우 긴요한 투쟁이다. 그러나 이것이 낸시 프레이저의 말대로 한 존재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정체성을 간과하고 하나의 정체성으로 ‘물화’시키는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닐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치적 올바름, 차이와 타자에 대한 강박이 실제적 차원이 아닌 상징계적 차원에서의 재현 일체를 불신하는 일로 그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언어는 기본적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바꾼다고 해서 그 말에 부착된 정념까지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청소부’를 ‘도우미’라고 고쳐 부른다 할지라도 편하와 무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단지 옮겨갈 뿐이다. ‘혁명은 안 되고 방만 바꾸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14)</sup> 성적 대상화와 여성성의 규정 등에 대한 공포로 인해 ‘무성성’을 지향하고 젠더 재현을 기피<sup>15)</sup>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라캉

오가 어쨌다구?’, 현실문화연구, 2015, 48-116쪽.

12) 전상진, 『극혐의 쓸모』, 『세계의 문학』, 2015년 가을호, 293-325쪽.

13) 전상진, 『극혐의 쓸모』, 『세계의 문학』, 2015년 가을호, 293-325쪽.

14) ‘동성애는 호모를 거쳐 게이, 레즈비언 등으로 거듭났지만, 그렇다고 동성애 혐오가 훨씬 더 줄어든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동성애’라는 말이 없어져야 한다. ‘동성애’라는 차별적 호명 자체에 이미 차별이 새겨지는 것이다. 페미니즘이 꿈꾸는 세상이 페미니즘이 없는 세상인듯, 동성애가 꿈꾸는 세상은 동성애라는 말이 없는 세상이 아닐까.

15) 양경언의 『최근 시에 나타난 젠더 ‘하기’(doing)와 ‘허물기’(undoing)’에 대하여』(『문학동네』, 2017년 여름호)에서 강조하는 ‘젠더 허물기’의 의미나 황인찬의 ‘2000년대

식으로 말하자면 상상계가 투영된 상징계에서 불평등을 제거한다고 해서, 실재계의 불평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그 모든 동일화의 폭력을 무릅쓰고서라도 타자를 재현하고 여성을 호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폭력의 의도가 아니더라도 그 동일성은 여성의 작품이든 남성의 작품이든 그 결과물로 비판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실재계에 ‘다른 효과들’을 만들어내야 한다.<sup>16)</sup>

페미니즘 비평이 ‘정치적 올바름’에 강박되어 올바른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가름하는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작품에서 재현된 술한 오류의 젠더를 기반으로 불평등성을 재구하고 논의해야 한다. 또한 ‘혐오-정체성 정치-정치적 올바름’의 논의는 단순히 문화적 인정투쟁 장(상징계)에 머무는 것에서 벗어나 사회경제적 차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유해야 한다.

전상진의 논의에 따르면 ‘극혐의 쓸모’는 문화적 차원에서 “1)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체성 근거를 제공한다. 2) 경쟁 상대의 권리를 몰수할 수 있는 합리적 설명을 제공한다. 3) 고통에 시달리는 이유와 무엇보다 누가 원흉인지 알려준다.”<sup>17)</sup> 즉, 혐오는 많은 논자들이 지적했듯 무한경쟁과 신자유주의 불안정성에서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재특회’의 예에서 알 수 있듯, 실업률의 증가와 경제적 불안정에서 발생한 두려움은 ‘타

시의 성차 약화’ 언급(『미지 × 회지 Vol. 1 : 찌는 세계-이자혜·황인찬,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인터뷰』(『문학과 사회』, 2016년 가을호) 등 참고.

16) 이에 대해 이명호는 다음과 같은 요지로 비판한 바 있다. “극단적 문화구성론에 입각한 버틀러의 시각, 특히 여성범주와 젠더 이분법의 해체가 정치적으로 배제된 퀴어의 복권을 의도하는 올바른 시각에도 불구하고 젠더와 젠더 트러블을 상징계의 층위에 위치시키고 실제의 층위에서 작동하는 성차(sexual difference)를 지위버리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젠더트러블과 성차의 윤리』 『안과밖』 21호, 영미문학연구회, 2006; 이명호, 『젠더지형의 변화와 페미니즘의 미래-1990년대 미국과 2000년대 한국 페미니즘 담론의 비교연구』, 『여성문학연구』 제26호, 2011, 143 쪽에서 재인용.

17) 전상진, 『극혐의 쓸모』, 『세계의 문학』, 2015년 가을호.

자'에 대한 혐오를 통해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합리화하게 만든다. 극심한 양극화와 신자유주의 경쟁체제가 '이주노동자'와 '여성'을 경쟁자로 호출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혐오의 근본적 구조이다. '혐오' 문화를 바꾸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억압보다는 '더 많은 민주주의'에 있다는 지적처럼 시민교육강화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sup>18)</sup>를 모색해야 한다. 여성혐오를 인정의 차원보다 분배의 차원에서 생각해야 하는 이유이다.

### 3. 일하는 '아내'와 일하는 '엄마', 그리고 일하는 '딸'

2010년대 사회적으로 들끓었던 여성담론은 낸시 프레이저의 두 가지 차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하나는 가사노동, 경력단절, 육아, 돌봄 등의 분배와 관련된 문제이고, 또 하나는 '여성혐오'로 대변되는 무시와 인정 등의 문화적 차원이다(해결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문제적 차원이 하나에 귀속된다는 것은 아니다) 한국문학도 이 두 가지를 중요한 주제로 담아내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 여성혐오와 성폭력을 주제로 한 강화길, 박민정의 작품, 일과 여성을 문제 삼은 김숨과 김이설, 윤이형의 소설, 김혜진의 『딸에 대하여』,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 등이다. 이 중에서 본 논문이 부각시키고자 하는 '분배투쟁' '여성의 노동'의 문제를 예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조남주와 김혜진의 작품을 집중 분석하고자 한다.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은 폐쇄적인 젠더담론이 보여준 일단의 문학담론과 달리 대중의 시각에서 여성문제를 다차원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많은 공감을 얻은 작품이다. 문학장에서 남성비평가들<sup>19)</sup>이 보여준

18) 박권일, 『짓을 권리는 허용하되 품고 가르치자』, 『한겨레 21』 965호, 2013.6.13; 전상진, 『극혐의 쓸모』, 『세계의 문학』, 2015년 가을호, 304쪽에서 재인용.

이 작품의 '미학성'에 대한 논란은 불편한 남성의 무의식을 표출하는 것에 그쳤을 뿐, 이 작품에 새겨진 풍부한 여성의 발화지점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82년생 김지영』은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여성'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사회학적 보고서이다. 르포와 유사한 방식으로 거칠게 서술되었지만, 그 간결성과 사실성으로 인해 이 다큐적 서사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텍스트가 되었다. 이 작품이 증언하는 바에 의하면, 여성은 성장과정에서 아들에 밀린 '딸'이 되고 학교와 사회에서 성적으로 대상화되며, 결정적으로 결혼과 육아를 통해 '아내'와 '며느리' '엄마'의 자리에서 주변부로 전락한다. 그 주변부 자리는 '침묵'이 강요된 자리이기 때문에, '김지영'의 복화술은 그것의 병리학적 증상으로 표출된다. 김지영의 분열증은 그녀가 '임금노동자, 양육자, 아내, 며느리' 등의 정체성을 조화롭게 통합시키거나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데에서 발생한다. 왜냐하면 그 정체성의 간극이 크고 심지어 모순되거나 충돌하기 때문이다. 보편적 시민권이 직장에서의 약자이자 성적 대상인 '여성', '시댁에서의 며느리, 가정에서의 하녀'로 미끄러지고 추락한다.<sup>20)</sup> 그것이 남자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젠더 측면에서) 직장, 친척, 가정에서 언제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가) 기획팀 인력 구성은 전적으로 대표의 뜻이었다고 한다. (...) 대표  
는 업무 강도와 특성상 일과 결혼 생활 특히 육아를 병행하기가

19) 조강석, 『메시지의 전경화와 소설의 실효성』, 『문장웹진』, 2017년 4월호; 전성욱, 『정치적인 것이 아니다』, 『문학의 역사들』, 갈무리, 2017.

20) 개인적으로 더러 학생들이 묻곤 한다. "선생님도 집안일하고 얘기하고 놀아주고 그 래요? 상상이 안 돼요." 이 말은 곧 교사의 위상과 주부, 엄마의 위상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 심지어 모순적인지를 보여준다.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여직원들을 오래갈 동료로 여기지 않는다.

- 나)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다. 2014년 통계에 따르면, 남성 임금을 100만원으로 봤을 때 OECD 평균 여성 임금은 84만 4000원이고 한국의 여성 임금은 63만 3000원이다. 또 영국 <<이코노미스트>> 지가 발표한 유리 천장 지수에서도 한국은 조사국 중 최하위 순위를 기록해, 여성이 일하기 가장 힘든 나라로 꼽혔다.
- 다) 김지영 씨가 회사를 그만둔 2014년 대한민국 기혼 여성 다섯 명 중 한 명은 결혼, 임신, 출산, 어린 자녀의 육아와 교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출산기 전후로 현저히 낮아지는데, 20~29세 여성의 63.8퍼센트가 경제활동에 참가하다가 30~39세에는 58퍼센트로 하락하고 40대부터 다시 66.7퍼센트로 증가한다.
- 라) 김지영 씨의 주변에도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일을 다시 시작한 엄마들이 많았다. 원래 일하던 업종에서 프리랜서로 전환한 경우도 있었고, 방문교사나 학원 강사, 공부방 창업 등 사교육 시장에 뛰어들어든 경우도 있었고, 캐셔, 서빙, 정수기 관리, 전화 상담 등 각종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직장을 그만둔 여성의 절반 이상이 5년이 넘도록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어렵게 재취업하더라도 직종과 고용 형태 면에서 모두 하향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 마) 그놈의 돕는다 소리 좀 그만할 수 없어? 살림도 돕겠다, 애 키우는 것도 돕겠다, 내가 일하는 것도 돕겠다. 이 집 오빠 집 아니야? 오빠 살림 아니야? 애는 오빠 애 아니야? 그리고 내가 일하면, 그 돈은 나만 써? 왜 남의 일에 선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
- 바) 어떤 분야든 기술은 발전하고 필요로 하는 물리적 노동력은 줄어들게 마련인데 유독 가사 노동에 대해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전업주부가 된 후, 김지영 씨는 '살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가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 때로는 '집에서 논다'고 난이도를 후려 깎고 때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떠받들면서 좀처럼 비용으로 환산하려 하지 않는다. 값이 매겨지는 순간, 누군가는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겠지.

사) 나도 남편이 벌어들여 주는 돈으로 커피나 마시면서 돌아다니고 싶다... 맘충 팔자가 상팔자야. (...) 한국 여자랑은 결혼 안 하려고...<sup>21)</sup>

위에서 인용한 문장들은 일하는 '아내'와 일하는 '엄마'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준다. 여성들은 '결혼과 육아' 때문에 직장에서의 일과 승진에서 배제되거나(혹은 배려되거나), 그래서 남자들보다 37% 적은 임금을 받으며<sup>22)</sup>, 남자들이 하루 평균 45분 해주는 집안일을 227분을 하고<sup>23)</sup>,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전업주부의 경우는 월 371만원의 고된 노동을 무임금으로 해낸다.<sup>24)</sup> 특히 이 작품에 공감하는 여성들 중에는 '육아'하는 전업주부가 많다. '김지영'이 결정적으로 퇴행적이고, 병리적 징후를 보인 것은 결정적으로 출산과 육아, 그러니까 무임금의 돌봄노동에 종사하게 된 경력 단절 이후의 일이기 때문이다. 위 인용문 라)는 경력 단절 이후 고용시장에 뛰어난 여성들이 열악한 저임금 노동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고발하고 있다.

그러나 '김지영'의 곤경은 가사와 육아라는 '무임금 노동'이나 절대적

21) 조남주, 『82년생 김지영』, 민음사, 2016, 123-164쪽에서 발췌.

22) 2012년 OECD 통계.

23) 고용노동부 발표, 『이투데이』, 2017.7.4.

24)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08년 '전업주부, 연봉을 찾아라'라는 이름의 전업주부 연봉 계산기를 발표했다. "이 계산기로 초등학교 1학년 딸과 3살 아들을 키우는 37살 전업주부의 월급을 따져보면 약 371만원이다. 연봉으로 따지면 약 4,452만원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법은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전업주부 가사노동의 가치가 일용직 건설 노동자의 일당(10만 2,628원)과 같으므로 이 방식으로 계산하면 휴일없는 전업주부 연봉은 3,745만원이 된다." 『가사노동 불평등 보고서③, 전업주부 연봉은 3,745만원』, 『여성신문』, 2017.1.25.

빈곤 때문만은 아니다. ‘김지영’을 ‘여성’이라는 자각으로 몰아넣은 것은 성차별에 의한 상대적 빈곤이자 노동 착취이다. 또한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이 작품은 ‘가사와 돌봄’에 부재하는 ‘인정’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인용문 4)의 ‘맘충 팔자’라는 발언으로 드러나는 멸시와 모욕, 5)가 고발하는 돌봄과 살림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 5)가 보여주는 여전한 성별분업의 구도 등은 ‘전업주부’에 대한 사회의 현재적 시각을 보여준다. 맞벌이 가구 44.9%(25)라는 수치에서 알 수 있듯 절반의 여성이 임금 노동자가 된 현재, 전업주부는 ‘무임승차’라거나 ‘부유층’으로 멸시와 질시의 대상이 된 것이다. 요리와 살림, 육아를 아무리 잘 해도 가족의 평가는 인색할 뿐 아니라 집 바깥에서는 아무 의미나 효용을 갖지 못하고 전문성도 인정받지 못한다. ‘맘충’이란 말은 이제 가정과 ‘엄마’의 영역에 침범한 자본주의적 발상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사회는 『82년생 김지영』이 제기하는 ‘가사와 돌봄’을 둘러싼 젠더 부정의를 심각하게 앓고 있다. 출산율 1.26(2017)과 비혼, 삼포세대, 경력단절녀, 독박육아, 병설유치원 등의 이슈는 현재 한국사회의 ‘페미니즘’ 재부상의 지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사회재생산’에 그치는 문제는 아니다. 최근 한 기사<sup>26)</sup>에 의하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서며 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노인돌봄’을 비혼여성에게 전담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지은숙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부모 돌봄의 순위는 1) 비혼 딸 2) 기혼 딸 혹은 비혼 아들 3) 기혼 아들이다. ‘개호독신’ ‘노노개호’<sup>27)</sup>의 문제를 심각하게 앓고 있는 초고령사회 일본의 뒤를 이어 우리나라도 ‘노인돌봄’의 비민주화 문제에 당면하게

25) 2016 통계청 자료.

26) 『국가는 가족에, 가족은 비혼자에 떠넘겨……‘돌봄의 민주화’ 고민할 때』, 『경향신문』, 2018.1.26.

27) ‘개호(介護)’는 간호, 병수발을 뜻하는 일본어.

된 것이다. 이 전면적 ‘돌봄공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돌봄은 단순히 청소도우미, 육아도우미, 요양보호사 등의 임금노동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돌봄’에는 물질적 노동 이외에 상호작용을 통한 감정, 교육과 재교육, 사회화 등의 비가시적 차원이 포함된다. 여성의 몫으로 할 당되던 이 돌봄노동에 대한 젠더평등과 해결은 현재 페미니즘이 당면한 중요한 과제이다. 낸시 프레이저의 논의에 기대 ‘돌봄’의 문제적 지형에 대해 살펴보고, 돌봄의 해방적 비전에 대해 생각해보자.

#### 4. ‘돌봄’과 젠더정의

낸시 프레이저는 현재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돌봄결핍’을 단순히 젠더의 문제나 사회 재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부분을 아우르는 ‘일반위기’이자 자본주의 사회 모순의 표출로 보고 있다. 특히나 이 돌봄 위기는 19세기 자유주의 경쟁 자본주의, 전후 시기의 국가관리 자본주의를 지나 현행의 신자유주의적 금융화 자본주의 국면에서 표출된 모순으로 규정한다.<sup>28)</sup>

28) 낸시 프레이저의 이론은 주로 『자본과 돌봄의 모순』(문현아 역, 『창작과 비평』, 2017년 봄호), 『가족임금 그 이후』(『전진하는 페미니즘』, 임옥희 옮김, 돌베개, 2017) 참조. 낸시 프레이저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산업시대 이후로 사회재생산 노동을 경제생산으로부터 분리했다. 사회재생산 노동은 여성과 경제생산은 남성과 연계하면서 ‘생산노동’은 화폐로 지불된 반면, ‘재생산’ 활동은 ‘사랑’이나 ‘선행’으로 주조하면서, 근대적 형태의 새로운 여성 종속화의 제도적 기초를 닦아왔다는 것이다. 그 역사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세기 자유주의적 경쟁 자본주의는 남성의 경제활동과 여성의 사회재생산 담당이라는 성별분업을 통해 ‘주부화’를 이상화시켰고, 20세기 국가관리 자본주의는 ‘가족임금’ 모델을 안착시키면서 돌봄을 국가와 시장에서 지원했으며, 그리고 현재 금융화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는 여성노동을 적극적으로 경제생산에 편입시키면서 ‘맞벌이 가족’을 이상화시키는 한편 돌봄공백을 발생시켰다. 낸시 프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즈음부터 등장한 신자유주의적 금융화 자본주의의 레짐은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세계화하면서 신자유주의적인 이 레짐은 국가와 기업이 사회복지로부터 투자를 철화하도록 독려하는 한편으로 여성은 유급노동력으로 충원하고 돌봄노동은 가족과 공동체로 외부화하여 이들이 실제로 돌봄노동을 수행할 역량을 감소시킨다. 그 결과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상품화된 조직과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개인화된 조직으로 이 중화되어, 후자 가운데 일부가 (저)임금으로 전자를 위해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새로운 재생산 조직이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페미니즘의 연이은 비판과 탈산업화로 인해 '가족임금'은 더 이상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기존의 이상형은 오늘날 '맞벌이 가족' 규범으로 대체된다.<sup>29)</sup>

위 인용문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체제는 여성을 경제생산의 장으로 적극적으로 호출하고, 유급노동화하면서 돌봄노동을 자연스럽게 '가정'의 영역에서 외화하거나 시장 영역으로 적극적으로 편입시킨다. 한편에서는 이것이 젠더평등을 향해 있는 듯하지만<sup>30)</sup> 실제로는 외별이만으로는 가정을 유지할 수 없도록 실질임금의 축소하고 맞벌이 가족을 이상화하고 있으며, 탈식민국가를 활용한 '글로벌 돌봄사슬'(global care chain: 빈국의 이주민이 부국의 도우미로 이전)을 통해 '돌봄간극'을 메우는 젠더 차별적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sup>31)</sup> 낸시 프레이저는 이 국면을

레이저에 따르면 이 중 국가관리 자본주의는 여성의 경제생산 활동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돌봄노동을 국가와 시장(기업)에서 지원하는 복지형태를 갖추으로써 '여성에게 가장 우호적인 듯하지만 여전히 이성에 규범,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젠더화된 가족 내 여성 전업주부 모델을 대체로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29) 낸시 프레이저, 문현아 역, 『자본과 돌봄의 모순』, 『창작과 비평』, 2017년 봄호, 346쪽.

30) 생산노동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평등은 페미니스트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체제가 경제재생산을 위해 기대고 있는 ‘비경제적 영역, 즉 사회의 경제 재생산’을 붕괴하고 잠식하는, ‘자본주의의 뿌리깊은 모순’의 현장으로 진단하고 있다.<sup>32)</sup>

낸시 프레이저의 논의는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비혼’ ‘육아’ ‘미혼모’의 문제가 단순히 젠더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사회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비경제적, 비가시적 서비스(가족과 공동체 내부에 귀속되었던 무급 노동)를 전면적으로 ‘임금노동’화하고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완전정복의 음모가 작동하고 있다. 노인돌봄의 비민주화, 요양원 시설 부족, 1인가구 급증 등도 이러한 거대한 체제 맥락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돌봄공백을 어떻게 풀 것인가. 다시 낸시 프레이저의 논의를 참고해보자.

낸시 프레이저는 남성이 가장인 이성애 핵가족 이데올로기가 추구했던 가족임금(남성이 돈을 벌어오고 아내-어머니는 이를 소비했던 형태)을 대체할 모델을 제시한다.<sup>33)</sup> 첫번째는 대다수 미국 페미니스트와 자유자들

31) 이러한 이동의 원인으로 낸시 프레이저는 두 가지 투쟁범주를 들고 있다. 하나는 자유시장주의자들과 쇠락하는 노동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성, 인종, 민족과 종교의 위계에 반대하는 세계시민주의와 특권을 지키려는 집단들 사이의 투쟁’이다. 그 결과는 “다양성, 능력주의, 해방을 칭송하는 한편으로 사회보호를 붕괴하고 사회 재생산을 재-외화하는 진보적 신자유주의의 부상”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시장친화적 신자유주의 자본의 진격 속에서 ‘인종차별 반대, 다문화주의, LGBT 해방, 환경운동’ 등의 해방운동이 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다. 즉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젠더평등의 이상형이 역설적으로 자본주의 모순과의 친연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낸시 프레이저, 문현아 역, 『자본과 돌봄의 모순』, 『창작과 비평』, 2017년 봄호.

32) 낸시 프레이저는 여성의 전면적 임금노동화와 돌봄공백의 문제성을 미국에서 현재 유행하는 ‘냉동 난자’(출산의 지연을 권장) 제공과 모유 펌프프리압착기(시간 빈곤 해결) 등과 관련지어 그 심각성을 언급하고 있다. 낸시 프레이저, 문현아 역, 『자본과 돌봄의 모순』, 『창작과 비평』, 2017년 봄호, 349쪽.

33) 낸시 프레이저, 『가족임금 그 다음- 후산업시대에 대한 사고실험』, 『전진하는 페미니즘』, 임옥희 역, 돌베개, 2017, 161-192쪽.

이 옹호하는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universal breadwinner)이다. 성별과 상관없이 임금노동자를 ‘보편적 생계부양자’로 상정하는 이 모델에서는 여성 고용을 증진함으로써 젠더 정의를 실현시키는 듯하지만, 여기에 여성의 정규직 보장, ‘돌봄노동’에 대한 국가지원 및 시장화, 돌봄노동의 지위와 임금의 향상, ‘직장 내 성차별 문화 개혁’ 등의 해결과제가 들어있다. 특히 낸시 프레이저는 이 모델이 ‘남편’과 유사한 삶을 사는 여성과 싱글여성에게는 유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게는 이전과 동일한 성별분업 속에서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 모델이라고 보고 있다.

두 번째는 서유럽 페미니스트와 사회주의자들이 실천하고 있는 ‘동등한 돌봄제공자’(caregiver parity) 모델이다. 이 모델은 여성의 임금노동 현장을 유연화하고 국가가 돌봄수당을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육아역할’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모델은 여성을 남성의 삶과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지 않고 차이를 유지하면서, 비공식 가사노동을 공식적인 임금노동과 동등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육아천국이라는 서유럽의 이미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이상화된 모델이다. 그러나 이 모델에도 여전히 직장 내에서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갖고 싶어하는 여성들에게는 불만일 수밖에 없는, 또한 여전히 젠더불평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유토피아적이지 않다고 진단한다.<sup>34)</sup>

낸시 프레이저가 사고실험이라는 이름으로 제출하고 있는 세 번째 유형은 ‘보편적 돌봄제공자’이다. 이 모델은 모든 사람을 ‘돌봄’의 주체, 즉 여성으로 상정하는 것이다. ‘지금 현재 여성의 생활패턴을 모든 사람이 규범으로 삼도록 하는 것, 즉 생계부양 노동과 돌봄 노동 양쪽을 하고

34) 미국이나 유럽이 완전히 이 두 유형으로 갈리는 것이 아니듯, 우리나라 또한 현재 두 가지 모델을 적절하게 결합한 형태의 돌봄모델 제도가 진행되고 있다.(여성 할당제, 아동보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정부공약 등)

있는 현재 여성을 보편자로 상정하는 것이다. 이 비전은 사회 체제를 남성중심에서 여성으로 이동함으로써 젠더불평등을 해결할 뿐 아니라, ‘돌봄공백’이라는 긴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방적이고 실용적이며, 효율적이다.<sup>35)</sup> 이 비전이 실현된 사회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동등한 돌봄제공자 모델과 달리, 고용 분야가 두 가지 다른 형태로 나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일자리는 돌봄제공자인 동시에 노동자인 사람들을 위한 방식으로 고안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지금의 상근직보다 주중 노동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취업을 가능케 하는 서비스를 지원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과는 달리 돌봄 노동을 사회서비스에 넘긴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상당수 비공식적인 노동은 공적 지원을 받고 단일사회보장제도 체계에서 임금노동과 동등하게 통합될 것이다. 어떤 비공식적 노동은 친척이나 친구가 집에서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런 가구들이 반드시 이성에 핵가족일 필요는 없다. 그 외의 지원받는 돌봄노동은 전적으로 가구 바깥에서 실시될 수도 있다. 말하자면 시민사회에 자리할 수도 있다.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지만 지역적으로 조직된 시설에서 무자녀 성인들, 노인들, 또 혈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부모 역할에 합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민주적이고 자기관리 형태를 띤 돌봄노동 활동에 합류할 수도 있다.<sup>36)</sup>

단지 보편자에 ‘여성’을 대입시켰을 뿐이지만 위의 비전은 급진적이고 유토피아적이다. 이 모델에 국가와 시장이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는 또 다른 관건이지만, 분명한 것은 남성중심주의, 이성에 핵가족에서 탈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본주의의 전면화에 대해서도 연대저항 할 수 있는

35) 물론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이러한 방향이 진행되고 있으나, 낸시 프레이저는 이를 더 급진적이고 제도적이며 보편적으로 구성해야한다고 보는 것이다.

36) 낸시 프레이저, 『가족임금 그 다음—후산업시대에 대한 사고실험』, 『전진하는 페미니즘』, 임옥희 역, 돌베개, 2017, 190쪽.

모델이라는 것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부족과 불합리한 서비스, 노인돌봄의 낙후성과 퇴행, 공동체 지원의 부재 등에 대한 다양한 현재적 불만을 ‘남성’ 돌봄자의 몫으로 확산시킨다면, 여성 분리적 젠더의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와 강력한 추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모델을 가정하면서, 김혜진의 『딸에 대하여』(민음사, 2017)에 투영되어 있는 ‘돌봄’ 현실과 젠더해체적 비전에 대해 살펴보자. 『딸에 대하여』는 ‘엄마’인 화자가 동성애자인 ‘딸’과의 일상을 담고 있는 소설이다. 그러나 이 소설의 문제성은 ‘동성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층위에서 보여주는 ‘돌봄’의 횡단성에 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여성 화자인 ‘나’는 60대의 여성으로 남편을 잃고,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삼십 대 중반의 대학 시간강사인 외동딸이 동성 파트너를 데리고 들어오면서 시작된다. 둘이 함께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딸’이 ‘시위 관련’ 일에 급히 사용함으로써 ‘나’는 딸의 커플을 받아들이게 된다. 서사의 한 축은 ‘나와 딸의 커플이 갈등하는 일상’으로 구성되면서 동성애자 딸에 대한 ‘나의 노여움과 원망, 파트너에 대한 혐오와 경원’ 등의 정념이 따른다. 또 다른 한 축은 ‘나가 요양원에서 돌보는 치매환자 ‘젠’(이재희)과의 돌봄일상을 따라가면서 전근대적 혈연가족, 냉혹한 시설의 자본주의 논리와 이에 대항하는 새로운 ‘가족공동체’의 연대를 보여준다.

화자인 ‘나’는 이 작품에서 전근대적인 혈연가족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성소수자 반대자로 등장한다. ‘아이’도 낳지 못하는 부부란 아무 의미 없으며, 남들은 어찌되든 ‘내 딸’이기 때문에 “숨과 체온, 피와 살을 나눠준 내 자식 하나”이기 때문에 직장도 버리고 전부를 걸었다는, 가족 배타주의를 자연스럽게 내재화하고 있는 평범한 인물이다. 이러한 배타성을 작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세상일이라니. 자신과 무관한 일은 죄다 세상일이고 그래서 안 보이는 데로 치워버리면 그만이라는 그 말이 맘에 들지 않는다. 제 자식들에게도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하겠지. (...) 그런 식으로 세상일이라고 멀리 치워 버릴 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 둘씩 만들어지는 거겠지. 한두 사람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는 크고 단단하고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뭔가가 만들어지는 거겠지.<sup>37)</sup>

그런 '나'에게 독신으로 살면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들을 돕는 일에 평생을 바친 치매노인 '젠'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이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그 어려운 공부를 마치고 이민자 자녀와 입양아들을 돕는 데 헌신하고도 덩그러니 공로패만 안고 요양원에 남게 된 '젠'은 '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생을 '낭비'한 한심하고 어이없는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혈연인 딸과 심리적으로 단절하고, '나'를 '엄마'라 부르는 낯선 노인의 돌봄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결국 '나'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젠'의 자리(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돌보는 세계시민)에 앉게 된다. 기저귀 값을 아끼기 위해 환자의 욕창을 외면하는 병원에 항거하고, '마음을 주지 말라'는 환자에게 마음을 주면서, '나'는 '환자'를 '젠'이라는 개별 실체이자 상호주체자로 받아들인다. 요양원은 가족도 없고, 국가지원금에 의해 연명하는 '젠'을 더 낙후된 병원으로 옮겨버리지만, '나'는 버스로 3시간 거리의 그곳으로 가서 '젠'을 만나고 급기야는 과도한 수면제로 인해 식물인간처럼 늘어져 있는 '젠'을 집으로 데려온다. '나'는 이제 파견업체에 종속된 임금노동자가 아니라 '젠'의 돌봄가족의 주체자임을 선포한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계약과 고용관계에서 벗어나 '젠'과 가족이 된 '나'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그녀를 돌본다.

37) 김혜진, 『딸에 대하여』, 민음사, 2017, 126쪽.

평화로운 죽음이 파사로운 가족 풍경으로 들어올 때까지. 그리고 이 돌봄을 통한 새로운 가족공동체의 구현은 또 하나의 새로운 횡단을 가져다준다. 즉, 딸애의 커플을 ‘동성애자, 레즈비언’라는 타자화된 정체성을 지우고 돌봄공동체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나’는 레즈비언 ‘딸’에 대한 강한 반발감, 성소수자 정체성으로 인해 ‘강사해임’된 딸에 대한 측은함 사이에서 갈등하면서도 딸의 동성애를 절대 용납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대립은 ‘젠’을 돌봄노동 속에서 잊혀지고 해소된다.

나와 딸애. 내가 데려온 젠과 딸애가 데려온 그 애가 머무르는 집 안에 신선한 바람이 새어든다. 종일 내가 한 것은 젠의 곁에서 다시금 저녁이 오기를 기다린 것뿐이다. 고요한 저녁이 오고 거짓말처럼 아무 일도 없이 하루가 지난다. (...) 날 돕는 건 언제나 딸애가 아니고 그 애다. 젠을 두고 외출할 때도, 젠의 식사를 준비할 때도, 젠을 목욕을 시킬 때도, 나는 그 애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젖은 기저귀가 가득 담긴 무거운 쓰레기봉투를 내놓는 것도 그 애다. (...) 때때로 젠은 내 말보다 그 애의 말을 더 잘 듣는 것 같다. 내게는 심술을 부리고 역지를 쓰다가도 그 애가 하는 말에 고분고분해진다. (...) 젠은 토요일 오후에 숨을 거두었다. 아침 뉴스에서 예보한 것처럼 신선한 바람이 불고 햇살이 좋은 날이었다. 딸애가 케이크를 사러 나가고 내가 마당에서 빨래를 너는 사이 젠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잠이 들었다. 주방에서 과일을 씻던 그 애는 젠이 잠든 줄로만 알았다고 했다. (...) 딸애와 나, 그 애가 좁은 주방을 이리저리 오간다. 고요하고 신속한 움직임. 내 신경은 온통 젠에게 가 있다. 그래서 그 애와 한 공간에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불러오는 불쾌함과 어색함을 까맣게 잊은 사람 같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고요한 순간들이 거짓말처럼 지나간다.<sup>38)</sup>

38) 김혜진, 『딸에 대하여』, 민음사, 2017, 181-187쪽.

요리사인 딸애의 파트너 ‘그 애’는 잠든 딸애 대신 요양원으로 와 ‘젠’을 함께 데리고 나오고, 위 인용문에서처럼 ‘젠’을 위해 요리하고 청소하고 돌봐주면서, 그리고 ‘나’에게 감기약을 사다주고 걱정해주면서 이들은 서서히 가족공동체를 형성한다. 비록 이들의 평화로운 가족 풍경은 ‘동성애’를 둘러싼 인정투쟁의 은폐 위에 성립한 것일지라도 돌봄노동 속에 각각의 정체성 투쟁의 대립을 용해시키고 무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지점이다. 위 인용문의 ‘자연스럽고 고요한 순간’으로 상징되는 화해는 ‘혈연가족’ 너머의 타자이자 절대적 약자이며, 세계시민인 “젠이 가져다준 평화, 잠깐의 휴전”인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혈연가족을 고집하던 ‘나’와 “가족이 뭔데? 힘이 되고 곁에 있고 그런 거 아냐?”라고 대립하던 딸애는 혈연을 넘어선 ‘돌봄가족’으로 결속한다.

이 작품은 이렇듯 돌봄을 통해 새로운 가족에 대한 대안, 그리고 이성애 중심주의 해체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위의 낸시 프레이저가 제안한 제3의 비전을 생각해볼 수 있는 지점들을 품고 있다. 가령, 딸을 이성애자로, ‘그 애’를 남성으로 가정해보자. 위의 장면은 낸시 프레이저가 언급한 ‘보편적 돌봄제공자’의 실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애’의 노동과 봉사처럼 모두가 보편적 돌봄제공자가 된다면, 그것은 인종 및 성적 정체성 투쟁을 해방하고 다른 젠더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횡단’이 되지 않을까.

## 5. 나오며— ‘아줌마’ 페미니즘을 위하여

이상에서 90년대 여성문학이 성취한 탈낭만화 이후의 여성담론과 돌봄의 젠더평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2010년대 여성담론은 정체성 정치,



여성 혐오, 정치적 올바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다. 그러나 과잉된 ‘여성성’ 논의와 ‘차이의 정치학’은 젠더불평등의 2차원적 문제 중 인정투쟁에 편중된 것이고, 상대적으로 분배문제를 간과해왔다. 본고는 경제적 불평등과 성별노동에 초점을 맞춰 여성의 일과 가사노동, 돌봄의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일종의 ‘아줌마 페미니즘’이라 이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줌마 페미니즘’이란 다음과 같은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거칠게 말하자면 ‘아줌마 페미니즘’이란 ‘젊은 여성(언니)과 차별화되는, 결혼 이후 혹은 비혼 이후의 여성의 노동과 일상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요청하는 말이다. 즉, ‘남자’로 상징되는 여성의 사랑과 결혼에서 벗어난 일상의 노동 현장을 강조하고자 하는 데에서 나온 말이다.

2010년대 페미니즘 재부상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한다. 주디스 버틀러는 ‘타인과의 관계속에서 훼손됨’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나와 다른 타자성’을 적대화하고 배제할 것이 아니라 ‘그것’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논의하는 것이 김수영이 말하는 ‘사랑하는 싸움’일 것이다. ‘혐오, 타자화’의 프레임은 오염이나 불순물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위생의 시학이다. 만약 이 프레임에서 ‘남자’와의 적대를 강조한다면 과거 영페미니스트들의 ‘페미니즘은 고소득과 자유연애, 담배를 안겨주고 남자를 빼앗았다’<sup>39)</sup>는 비판이 반복될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남성의식에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여성의 성적 대상화, 여성혐오 등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남성과의 전선과 전투가 남성과 여성의 완전한 결별, 즉 여성만의 세상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남성’과 함께 살 수 밖에 없다면 현재 남성중

39) 이명호, 『젠더지형의 변화와 페미니즘의 미래-1990년대 미국과 2000년대 한국 페미니즘 담론의 비교연구』, 『여성문화연구』 제26호, 2011, 139쪽.

심의 문화를 수정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혐오’로 ‘분단’된 여성/남성의 길을 다시 열고 상호주체성에 기반 한 ‘사랑하는 싸움’을 잘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남성중심 시각에 의해 폄하된 작품들을 비판하고 수정하는 현재의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김혜진, 『딸에 대하여』, 민음사, 2017.  
조남주, 『82년생 김지영』, 민음사, 2016.

### 2. 논문과 단행본

- 김양선, 『2000년대 한국 여성문학비평의 쟁점과 과제』, 『안과밖』, 2006, 40-61쪽.  
양경연, 『최근 시에 나타난 젠더 '하기'(doing)와 '허물기'(undoing)에 대하여』, 『문학동네』, 2017년 여름호.  
이명호, 『젠더지형의 변화와 페미니즘의 미래—1990년대 미국과 2000년대 한국 페미니즘 담론의 비교연구』, 『여성문학연구』 제26호, 2011, 133-161쪽.  
임옥희, 『주체화, 호러, 재마법화』, 『여성 혐오가 어쨌다구?』, 현실문화연구, 2015, 48-116쪽.  
임지연, 『‘여성문학’ 트러블』, 『여성문학연구』 26호, 2011, 103-132쪽.  
전상진, 『극혐의 쓸모』, 『세계의 문학』, 2015년 가을호, 293-325쪽.  
전성욱, 『정치적인 것이 아니다』, 『문학의 역사들』, 갈무리, 2017.  
조강석, 『메시지의 전경화와 소설의 실효성』, 『문장웹진』, 2017년 4월호.  
최은영, 『당신의 평화』, 『현남 오빠에게』, 다산책방, 2017.  
황인찬, 『미지 × 희지 Vol. 1: 찢는 세계—이자혜·황인찬, 다음을 기억할 수 없는 인터뷰』, 『문학과 사회』, 2016년 가을호, 129-171쪽.  
낸시 프레이저, 『지구화 시대의 정의』, 김원식 역, 그린비, 2010.  
\_\_\_\_\_, 『진진하는 페미니즘』, 임옥희 역, 돌베개, 2017.  
\_\_\_\_\_, 문현아 역, 『자본과 돌봄의 모순』, 『창작과 비평』, 2017년 봄호, 329-353쪽.

Abstract

Feminism Discourse and its Enemies in the 2010s  
— For the Crossing of ‘Care’ and Mrs’s Feminism

Jung, Eun-Kyoung(Chung-Ang University)

This paper studies feminism achieved by women’s literature in the 1990s after post-romanticization and considers the gender equality of care for family. Feminism discourse in the 2010s has consisted mainly of identity politics, misogyny, and political correctness. However, the excessive discussion of ‘femininity’ and ‘political politics of difference’ are concentrated on the struggle of recognition of women among the two-dimensional problems of gender inequality, and have overlooked the problem of economic distribution relatively.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roblems of women’s work, housework and caring, focusing on economic inequality. Jo Nam-Ju’s *Kim Ji-young, who was born in 1982* represented a contempt of women and ‘Mom worm’, showing the reality of the capitalism that has invaded the realm of the family and mother, and the objection to the serious gender negation of ‘housework and care’.

Nancy Fraser criticizes the Neo-liberal regime for withdrawing social welfare investment and forcing women to work under paid labor, resulting in serious care gaps. Nancy Fraser has mentioned three alternatives to this. Universal livelihood support model, equal care provider model, and universal care provider model. The first one is universalizing male, the second is still limited in that it reproduces the difference, and positively suggests a third method of assuming everyone as the subject of ‘care’, that is, women.

In Kim Hye-jin’s novel *About Daughter*, a female speaker who cares for an elderly person with dementia with daughter’s homosexual lover can be a meaningful realization of Nancy Fraser’s third alternative. ‘I’ and daughter’s lover, while cooperating in caring community, cross the family ideology, homophobia and embody the universal caring provider model.

Since the 2010s, the feminism discourse must contemplate how feminism can

coexist harmoniously with men, taking into account both struggle for recognition and that of distribution.

(Keywords: care, post-romanticization, Nancy Fraser, Jo Nam-ju, *Kim Ji-young, who was born in 1982*, Kim Hye-jin, *About Daughter*, homosexuality, misogyny)

논문투고일 : 2018년 4월 8일  
심사완료일 : 2018년 5월 5일  
수정완료일 : 2018년 5월 11일  
게재확정일 : 2018년 5월 15일